경기일보 - 경기문화재단 공동기획

경기의 藝人匠人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찾아서 〈11〉

제8호 승무·살풀이 김 복 련 씨

△바라춤

"재인청 춤사위…자존심 이어 가야죠"

△살풀이춤

△진쇠춤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고이 접어서 나빌레라/파르라니 깎은 머리/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두 볼에 흐르는 빛이/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조지훈의 시 '승무' 중에서)

종교적 숭고함과 서정성을 함께 지닌 시인 조지훈이 영감을 얻었다는 한 여승의 승무는 시인의 마음을 동할만큼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 승무·살풀이는 화려한 기교를 절제한 단아함이 매력이다.

현재 이매방류(호남류) 승무·살풀이의 춤동작이 재고 경쾌한데 반해 경기도의 승무·살풀이는 호흡이 길고 밑으로 깔리는 가락이어서 다소 난해하지만 그 근엄한 깊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故 이동안·정경파 선생 사사

故 운학 이동안과 옥당 정경파 선생에게 승무·살풀이 등을 전수받은 도무형문화재 제8호 김복련씨(55·수원시 장안구 신풍동)의 무용연구소에서는 오는 20일 열릴 화성 용주사의 '제1회 승무제' 연습이 한창이었다.

김씨는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승무제는 시인 조지훈의 시 '승무'와 연관된 것이라 들뜬 기분으로 연습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91년 정경파 선생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이수자의 길을 걸었던 김씨는 95년 전수조교로 발탁, 재인청춤의 발굴에 앞장섰다.

구한말 화성 재인청은 전문예인이 갖추어야 할 전통무용, 국악, 판소리, 땅재주, 줄타기 등을 교육하였으며, 일정한 소질을 갖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권위를 갖고 있었다.

이곳에서 정경파 선생은 스승인 이동안 선생에게 승무, 살풀이춤을 비롯해 신칼대신무, 기본무 등을 사사했고 평생을 화령전에 지내며 화성 재인청의 춤을 전파했다.

이때 김복련씨는 20여년간 정경파 선생의 문하생으로 재인청의 춤을 사사했으며, 정경파 선생 작고후 2002년부터 예능보유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재인청의 승무는 춤의 유래가 확실하고, 호흡이 길고 깊으며 정적인 것이 특징이다.

깊은 산사의 상좌가 도승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꿈에서 본 춤을 추고 절을 떠난다는 유래와 북놀이 과장이 끝나면 고깔과 장삼을 벗어 북에 걸치는 과정이 다른 류의 승무와 구별된다.

김씨는 "고깔과 장삼을 벗는 것은 모든 액운을 벗어버리는 해탈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승무·살풀이춤 '단아한 멋' 매력

승무는 해금, 젓대, 목피리, 곁피리, 장고, 북으로 편성된 삼현육각(三絃六角)의 반주로 매우 느린 6박자의 '긴염불'을 시작으로 조금 빠른 '반염불', 4박자 장단의 타령, 흥겨운 굿거리 등이 이어진다.

한편 살풀이춤은 온통 흰색으로 치장한다. 흰색 치마저고리에 흰색 끈을 허리에, 흰 비녀를 머리에 맨다. 이것은 호남류의 옷고름이 자주색인 것과 다르다.

또 김숙자류의 도살풀이가 1개의 긴 수건인 반면 재인청류는 2개의 수건을 사용한다.

두 개의 수건 중 하나는 들고 다른 수건은 뒤에 놓은 후 손끝의 섬세한 동작을 펼친다. 수건 두 개로 그려지는 태극무늬는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아 한과 슬픔을 환희의 세계로 승화시키려는 마음이 담겨있다.

김씨는 "살풀이춤은 이승에서 못다푼 넋과 저승길의 한을 달래는 춤"이라며 "장엄하고 숭고한 정신세계를 춤사위로 풀어낸다"고 말했다.

김복련씨는 어릴 때부터 서예와 판소리에 조예가 깊었던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통문화를 체득했다. 이후 고교시절까지 춤을 추었으나 결혼과 동시에 춤과 멀리했다.

자녀를 양육해야 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완강한 반대가 큰 이유였다.

"춤 출때 모든 상념 사라져"

"당시만 해도 춤을 춘다고 하면 기생춤을 생각하시던 시어머니의 호통이 무서워서 그만 두었지요"

춤을 못추자 원인도 모를 병이 찾아왔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도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머리가 쑤시고 몸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도 맞닥뜨렸다. 건강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김씨는 만신집을 찾기도 했다.

"점집이나 절에 가면 무당이나 중이 될 팔자라고 하더군요"

춤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김씨는 원인도 모르는 병치레에 무척 힘든 때였다고 말했다.

이후 화성재인청의 큰 어른이었던 이동안 선생이 운영중인 서울 회기동의 발탈연구소에서 10년 넘는 공백기를 뛰어넘어 다시 춤과 인연을 맺었다.

김씨는 83년 수원에 살고있는 정경파 선생의 문하생으로 들어가 체계적인 수업을 받았으며, 차분한 성격만큼이나 열심히 재인청의 춤사위를 익혔다.

'춤을 출때 모든 상념이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진다'는 김씨는 작고 다부진 키에 긴팔과 둥근 얼굴이 한국춤의 제격이라 정경파 선생을 도와 각종 춤 발표회를 진행했다.

"정경파 선생님은 정말 친딸처럼 저를 아껴주셨어요. 언제나 화려했던 화성 재인청의 춤을 복원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곤 하셨죠"

'살아계실 때 더 잘 해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는 김씨는 수원 포교당에 '평생위패'를 마련, 매달 18일 넋을 위로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으며, 망자가 극락간다는 백중(白中·음력 7월15일)에는 용주사에서 제를 지내기도 했다.

'화성재인청' 원형 복원에 심혈

또 오는 11월17일께 정경파 추모 3주년 기념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공연에는 평소 살풀이를 좋아했던 선생을 위해 살풀이춤과 영혼을 극락으로 모시기 위한 '신칼대신무'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김씨는 '재인청의 활성화'라는 스승의 유업을 받들어 지난 3월 사단법인 화성재인청보존회(이사장 김복련)를 설립했다.

이는 조선시대 최대의 예인집단인 '화성재인청'의 기예를 본격적으로 발굴·연구하기 위한 것. 현재 50여명의 회원들이 무용·기악·풍물·민요·학술 분과별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동안 선생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원형 복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씨는 "현재 재인청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많지 않지만 학계와 이동안 선생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재인청의 원형을 복원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보존회는 대학 등 연구기관과 연계해 화성재인청 관련 자료검증, 학술발표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초·중·고급으로 나눠 전문교육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승무

김씨는 "재인청류의 기예를 지닌 전국의 예인들이 모이면 3현6각의 기악과 풍물, 무용 등 100여명의 대규모 인원이 어우러져 번성했던 재인청의 기예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전통춤만을 고집한다.

김씨는 "창작무용을 하면 전통무용만의 호흡이 흐트러진다"며 "아직 복원하지 못한 재인청의 기예를 발굴해 복원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향후 김씨는 전통무용의 활성화를 위해 20일 치러지는 승무제를 확대해 내년에는 화성행궁 등에서 경연제로 펼칠 계획이다.

또한 수원시에서 추진중인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 설립(2005년 예정)되면 전승과 일반관람객을 위한 상설공연을 야심차게 펼칠 예정이다.

/이연섭·이형복기자 bok@kgib.co.kr
사진/김시범기자 sbkim@kgib.co.kr